

리얼 크리스천(3)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 전서 2:1-10)

✠ 말씀 나누기

1. 나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생각이나 말, 행동이 달라졌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상처받거나 거절당했을 때 나는 어디로 향합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던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3.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번 한 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나타낼지 구체적으로 결단해 보세요.

✠ 함께 기도하기

1.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소서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기쁨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상처와 거절 속에서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제 인생의 모퉁잇돌로 삼아 온 삶을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을 마음에만 간직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하시며,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 찬양하기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 나는 네 하나님이니 - 모든
환난 가운데 - 너를 지키는 자라 - 두려워하지 말라 - 내가 널
도와 주리니 - 놀라지 말라 - 네 손 잡아 주리라 - 내가 너를
지명하 - 여불렀나 - 너는 내 것이라 - 내 것이라 - 너의
하나님이라 -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 너를 사랑하 - 는 네여호와라

도입 |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신 나의 이름

빅토르 위고의 소설 『장발장』에서 장발장은 오랜 세월 감옥에서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며 살았습니다. 출소 후에도 세상의 냉대를 받았지만, 미리엘 주교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론 | 1. 왕 같은 제사장은 말씀을 먹고 자라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려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악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듯 이러한 죄를 벗고,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은 취향이 아니라 영적 건강의 증거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켜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본론 | 2.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님께 나아가 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우리는 거절과 상처를 경험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며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깨어진 돌과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모퉁잇돌로 삼고, 예배의 손님이 아니라 주체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을 드리며, 일상의 삶까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론 | 3.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선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마음에서 흘러넘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에 삶과 입술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결론 |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말로만 간직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자라며,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받은 사랑과 긍휼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과 입술로 선포하는 리얼 크리스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